

메르스에 묻혀 조용히 끝난 황교안 청문회

병역비리 의혹 규명 못하고 증인·참고인도 “모른다”

여야 임명동의안 처리 입장 엇갈려 채택 불투명

여야는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 날 인사청문회를 열어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황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 검증작업을 벌였으나 의혹 규명에 별다른 진전없이 지루한 공방만 이어졌다.

특히 여야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11일 국회 청문특위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12일 본회의 표결 절차가 원만히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황 후보자의 ‘사면 자문’이 새 정점으로 떠올랐으며 “현재 전 반적으로 우리로서는 총리후보자로서의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 검증은 통해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 병역 및 납세의 의무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운 후보가 아니며 확인됐다”며 “국가적 과제를 헤쳐나갈 국무총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도 기한 내에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황 후보자의 인준에 난항을 예상케 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채택에 대해 “후보자가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사청문

회 경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채택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없다”며 “정의당, 새정치연합은 각각 당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흘간 인사청문회에서 결격사유가 없음이 확인됐으며 법정시간(14일)을 지켜서 이번 주 안에 인사청문 특위의 경과보고서 채택,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끝내는 방침이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신임 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루빨리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한편, 이날 열린 마지막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및 병역면제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으나 증인 및 참고인들은 기존에 나왔던 해명을 반복한 수준으로 언급하거나 “모른다”는 답변이 많았다.

더욱이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 후보자와 갈등을 빚던 중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일부 핵심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검증의 강도와 주목도를 떨어뜨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와 고교 동창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 관심을 끌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때 ‘떡값검사’ 명단을 폭로했다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 후보자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결국 국회 의원직을 잃었다.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가 부정부패 및 적폐해소에 적합한 총리냐”는 의원의 질문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예산 과다 지출 지자체 교부세 깎는다

행자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감액 요청 주체 부처까지 확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한 지자체단체에 대한 감사가 강화된다.

과다 지출 사례가 발견되면 지방교부세를 적게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출 효율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가 논의됐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지방교부세법 11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거나 수입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경

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교부세를 줄이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에서 남용 사례가 지적되면 행정자치부 감액심의위원회에서 다음 해 교부될 지방교부세에서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돼 왔다. 올해는 263건에 대해 총 303억원이 감액됐다.

행자부는 앞으로는 감액 요청 주체를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 외에 각 부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과다 지출 사례가 발견되면 감액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 지출한 경우에도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 행자부는 하반기 중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래서 안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신환섭 DJ센터사장 내정자 청문보고서 채택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9일 신환섭(사진)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특위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통해 신 내정자의 장점으로 “31년 코트라 경력 등 전시컨벤션 분야 전문가로 해외 유명브랜드 전시회 유치 의지 표명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 “MICE산업에 대한 이해와 환경변화를 인지하고 컨벤션센터와 컨벤션부로의 역할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향후 상생적 협력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점으로는 “비전 및 경영철학에 대해서는 실험전략과 효과적인 실천을 위



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고 광주 근무기간이 1년 3개월에 불과한 것은 지역사회 인적네트워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청문보고서를 참고해 신 내정자의 임명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한편 신 내정자는 지난 1984년 코트라에 입사한 후 광주·전남무역관 과장, 충북·전북·충청무역관장, 일본지역본부장 겸 도쿄무역관장, 수출(창업)지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산구, 의회 행정사무조사 재검토 요구 ‘갈등’

區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2곳 자치법 위배”

일부 의원들 “정당한 의정 행위… 수용 못해”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광주시 광산구는 구 산하 복지기관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재검토 해달라고 요구해 결과에 대한 관심과 함께 서로의 주장이 맞설 경우 파행이 예고됐다.

광산구는 구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

해 구 산하 공익활동지원센터,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나서는 데 대해 ‘재의’(재검토)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산구는 특위의 사무조사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구는 특위 조사 대상이 특정

사무가 아닌 인력, 예산 등까지 포괄적이어서 두 기관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회의 사무조사로 두 기관의 활동이 위축되고 법으로 정해진 사무조사 기간도 아나라며 맞서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작년 말 이미 사무조사를 했는데 또다시 조사를 명목으로 특위까지 결성한 것은 집행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위법인데다 지방자치에도 역행한

다”고 강조했다.

광산구의회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구의 재검토 요구에 대해 논의하고 특위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행위로 집행부의 재검토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광산구의회는 지난달 11일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사무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

광산구의회 16명 가운데 9명이 참여하는 특위는 이달부터 6개월간 두 기관의 인력 구성, 채용 현황,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최종후보자 김승권씨

전남복지재단 이사회가 10일 오전 전남도청 정철실에서 제3차 임시 이사회를 갖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순위 추천자인 김승권(60·사진)씨를 제2대 대표이사 최종후보자로 결정했다.

김 후보자는 경남 출신으로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으며, 정부 국제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0여년간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해왔다.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연구’ 외 단행본 147편



과 논문 90편을 발표했으며, 대통령직속 위원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광역시·도 등 사회복지관련 법률 제·개정 및 정책자문 등의 경력을 갖췄다.

이사회는 전남도의회 인사청문회와 보건복지부 임원승인 절차를 거쳐 전남 지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15 골프아카데미 왕중왕전 메인 협찬사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NO.1 골프선불카드 에스골프 선불카드

전국 300곳 골프장 (대전, 충남 명문골프장)포함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지원

에스골프 홍보모델 최홍림

광주지사OPEN기념 (한정100구좌)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9001-04-042641 (주)삼성회원권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싱글	350만원	기명 1인	3년	총 40회 (년 15회)	주중 3회 또는 주중 1회, 주말 1회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3년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VAT포함 금액입니다.

SG에스골프만의 혜택

1. 전국 골프장 이용가능
2. 비즈니스 활용(무기명 4인-최고 만족도)
3. 라운드 후 식음료, 캐디비만 내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광주지사) **062) 415-8811**

본사 서울 1566-9799

지사 부산 (경남.부산지역) 051) 916-9700
 경남 (경남.부산지역) 051) 916-7070
 대전 (충남.대전지역) 042) 320-7800
 대구 (경북.대구지역) 053) 248-6666
 울산 (경남.부산지역) 052) 260-4575

Famile co

SAMSUNG MEMBERSHIP **삼성회원권**

BOOKING G B MALL M S
골프부킹사이트 www.bookingmall.co.kr

SG 에스골프

BOOKING H T MALLS C G
호텔/론도예약사이트 www.bookingmalls.com

한진관광 (타워플러스점) http://tp.kaltour.com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http://www.bookingmall.co.kr